

## 주디스 버틀러의 소아성애와 근친상간 옹호를 비판한다

- EBS 자녀교육의 '트러블 메이커' 주디스 버틀러 '위험한 수업' 비판 -

정일권 전 송실대 기독교대학원 초빙교수

### 들어가는 말

2021년 EBS 교육방송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주디스 버틀러('젠더 트러블) 방송이 수 많은 학부모 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다. 주디스 버틀러는 소아성애를 지지하며 근친상간 금기를 해체하고자 한다.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이 교육방송인 EBS가 대중화시킬 수 있는 보편적 교육가치인가? EBS는 버틀러를 "트러블 메이커"로 찬양했는데, 버틀러는 아이들 성적체성 허물기와 흔들기를 시도하는 자녀교육의 "트러블 메이커"다. 2010년부터 독일 교육계를 중심으로 독일 68 성혁명 운동의 소아성애적-남색적 과거사 청산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소아성애의 비범죄화를 주도하고 근친상간 금기 폐지를 주장했던 독일 녹색당은 2014년 이 소아성애 과거사에 대해서 당대회에서 당대표가 공식 사과했다. 2017년 버틀러가 브라질을 방문해서 강의하려고 할 때 "소아성애 반대"라는 팻말을 든 시민단체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되었다. 당시 소아성애 지지자인 버틀러의 강의를 비판하는데 브라질 시민 36만명이 서명을 했다.

### 1. 시몬 드 보부아르와 주디스 버틀러의 소아성애 변호

#### 1. 1. 시몬 드 보부아르의 소아성애적 기획, 그루밍 그리고 폴리아모리

버틀러가 소아성애와 근친상간 변호를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현대 페미니즘의 대모인 시몬 드 보부아르의 소아성애적 기획과 장 폴 사르트르와의 폴리아모리에 대해서 논한다. 시몬 드 보부아르와 사르트르의 반일부일체적인 폴리아모리 관계는 프랑스와 독일 68 성혁명 운동의 폴리아모리의 모델로 작용했다. 국내 페미니즘 진영에서 버틀러는 제 2의 시몬 드 보부아르로 불리며, 버틀러도 EBS 1, 2, 3강에서 상세하게 시몬 드 보부아르에 대해서 논의했다.

2021년 4월 여성 매거진 『에비』(Evie)는 "미셸 푸코와 다른 진보적 지식인 영웅들은 소아성애자들이었다"는 제목으로 시몬 드 보부아르의 "소아성애적 기획"을 비판하면서 그녀가 자신의 학생들인 어린 소녀들을 "그루밍하고" "유혹해서" 자신의 폴리아모리적인 파트너 장 폴 사르트르의 섹스 파트너로 넘겨준 사실에 대해서 보도했다. 시몬 드 보부아르는 장 폴 사르트르는 섹스 파트너도 공유했다고 이 매거진은 보도했다. 이 기사는 2021년 폭로된 미셸 푸코의 동성애적 소아성애(남색)를 폭로하면서 푸코 뿐 아니라, 시몬 드 보부아르 등 다른 68 진보 지식인들은 "소아성애적 철학"을 전개한 "소아성애자들"이었다고 분석했다.<sup>1)</sup> 이 여성 전문지는 "미셸 푸코의 저작들에

1) S. G. Cheah, "Michel Foucault And Other Progressive Intellectual Heroes Were Pedophiles," Evie Magazine 2021년 4월 5일 기사

깊게 영향을 받아서 주디스 버틀러는 ‘세대간 섹스’(intergenerational sex)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또한 제안한다고 적고 있다. ‘세대간 섹스’는 기본적으로 성인들이 어린이들과 섹스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아카데미한 전문용어다. 이 제안을 변호하면서 버틀러는 이 주제에 대한 푸코의 책을 인용했다”고 잘 분석했다.<sup>2)</sup>

시몬 드 보부아르는 거의 대부분의 프랑스 포스트모던 철학자들과 함께 소아성애의 비범죄화를 주장했다. 슬라보예 지젝의 의하면 푸코처럼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프랑스 공산당원이었던 장 폴 사르트르, 태아를 “기생충”으로 묘사하는 “낙태의 어머니” 시몬 드 보부아르, 해체주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 기호학자 롤랑 바르트, 미셸 푸코, 아라공, 들뢰즈와 가타리, 리오타르 등 프랑스 68 포스트모던 좌파 철학자들 거의 대부분이 소아성애의 비범죄화를 주장했다.<sup>3)</sup> 1977년에 시몬 드 보부아르는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 루이 알튀세르, 장 폴 사르트르 등과 함께 프랑스 국회에 제출된 소아성애적 접촉의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청원에 서명했다. 들뢰즈-가타리의 『안티-오이디푸스』의 서문을 쓰기도 한 프랑스 포스트모던 철학자 미셸 푸코도 독일 녹색당의 주장처럼 합의에 의한 소아성애의 비범죄화를 주장했다. 푸코는 1977년 강간범죄는 오직 폭력범죄로만 처벌되어야 하며, 성범죄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1978년에는 성인과 어린 아이들의 “비강제적인 섹스는 완전히 비범죄화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페미니스트들은 강간과 소아성애에 대한 푸코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일관되게 비판적이었다.<sup>4)</sup>

독일 녹색당과 좌파의 “소아성애적 안티파(안티파시즘)” 운동에서는 “동성애의 비범죄화 운동과 소아성애 운동이 동일한 그룹에 의해서 추진되었다”고 2020년 독일 뷁르츠부르크 대학 현대사 교수인 페터 호에레스(Peter Hoeres)는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소아성애는 1980년대의 독일 녹색당의 미래기획이었고 이는 동성애의 비범죄화와 연결되어 있는데, 동성애 운동과 소아성애 운동은 동일한 그룹에 의해 추진되었다.”<sup>5)</sup> 소아성애와 근친상간 금기 깨기는 버틀러만의 기획이 아니라, 푸코와 독일 68 성혁명 운동의 중요한 기획이었다.

<https://www.eviemagazine.com/post/michel-foucault-and-other-progressive-intellectual-heroes-were-pedophiles?fbclid=IwAR0zQATI7JQSfpOy5oo8aK7PUY1F9hVLnImGK-q8aZiWuWPNyQZpjN3GTIXU>): “Among her pedophilic enterprise was the grooming of underage girls for sex and later passing them over to be bedded by her long-time lover Jean-Paul Sartre.”

2) S. G. Cheah, “Michel Foucault And Other Progressive Intellectual Heroes Were Pedophiles,” *Evie Magazine* 2021년 4월 5일 기사(<https://www.eviemagazine.com/post/michel-foucault-and-other-progressive-intellectual-heroes-were-pedophiles?fbclid=IwAR0zQATI7JQSfpOy5oo8aK7PUY1F9hVLnImGK-q8aZiWuWPNyQZpjN3GTIXU>): “Heavily influenced by the works of Foucault, Judith Butler also proposed the legitimacy and legality of “intergenerational sex.” The term “intergenerational sex” is basically academic jargon for adults being able to have sex with children. In defense of this proposal, Butler cited Foucault’s work on the subject.”

3) Slavoj Žižek, “SEXUAL LIBERATION, 1968 and 2018” (<http://fabella.kr/xe/blog11/83200?fbclid=IwAR3S79jS-MNZKiiUM&r5OBKwJiNIXPfcinK1gaJikTZBKXFGDX6Hvh7Nwk>)

4) Chloe Taylor, *Foucault, Feminism, and Sex Crimes: An Anti-Carceral Analysis* (Routledge 2018); Linda Alcoff, “Dangerous Pleasures: Foucault and the Politics of Pedophilia,” in Susan Hekman (ed.), *Feminist Interpretations of Foucault*. Pennsylvania State Press (1996).

5) 페터 호에레스 교수는 2020년 3월 11일 독일 보수주의 도서관(Bibliothek des Konservatismus)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이후-미래 보수주의의 개막극(Nach der Postmoderne - Vorspiel eines Konservatismus der Zukunft)”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현대사 전공의 역사가로서 독일 녹색당과 좌파정당이 추진했던 동성애 운동과 소아성애 운동이 동일한 그룹에 의해서 추진되었다고 주장한다.

## 1.2. '세대간 섹스'(소아성애)의 정당성과 합법성에 대한 버틀러의 변호

버틀러는 2000년 공저한 저서에서 소아성애를 의미하는 “세대간 섹스”(intergenerational sex)의 “정당성과 합법성”과 같은 이슈에 대한 “논쟁의 정치문화를 유지하는 것이 결정적이다”고 주장한다.<sup>6)</sup> 버틀러는 『젠더 트러블』에서 미셸 푸코가 『성의 역사』에서 “다양한 규제적 전략들의 부과 이전에 존재하는 세대간 성관계(intergenerational sexual exchange)의 ‘목가적’이고 또한 ‘무죄한’ 쾌락들에 대해서 언급한다”고 적고 있다.<sup>7)</sup> 2021년 프랑스 해외석학 기 소르망 교수는 미셸 푸코가 튀니지에서 어린 소년들과 동성애적 소아성애(남색) 매춘과 강간을 했다고 폭로한 바 있는데, 미셸 푸코가 말하는 목가적이고 무죄한 세대간 성관계는 소아성애를 의미한다. 미셸 푸코는 성소수자 운동, 동성애 운동 그리고 퀴어 이론의 대부다. “지식, 권력 그리고 섹슈얼리티의 상호관계에 대한 푸코의 분석이야말로 퀴어 이론의 가장 중요한 기폭제였다.”<sup>8)</sup> “푸코의 저서는 퀴어 이론에 대해서 초석적이었다.”<sup>9)</sup> 포스트모던적 페미니즘 혹은 버틀러식의 젠더퀴어 페미니즘(성인지 페미니즘)은 쉽게 말해 “푸코적 페미니즘”(Foucauldian Feminism)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sup>10)</sup> 이후 소개할 급진페미니즘 학자 게일 루빈(Gayle Rubin)은 레즈비언으로서 이후 소아성애자와 사도마조히스트(SM)으로 커밍아웃한 학자로서 1970년대 후반 미셸 푸코의 『성의 역사』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주목한 학자였다. 미셸 푸코의 입장은 퀴어 이론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이 되었다. 주디스 버틀러는 게일 루빈에게서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다.

버틀러가 인용하면서 계승하는 소아성애에 대한 푸코의 관점은 이후 소개할 “소아성애적 안티파시즘” 운동으로 불리는 독일 68 학생운동과 녹색당에서도 발견되는데, 독일 68 학생운동에게 있어서 “‘해방된’ 성은 어린아이들과 성인들 사이의 어떠한 권력관계도 생각할 수 없는 죄 없는 순수함의 루소적인 제국(rousseauistisches Reich der Unschuld)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다.”<sup>11)</sup> 소아성애자이면서 권력비평가인 푸코는 성인과 소아 사이의 세대간 성관계에는 어떠한 권력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목가적인 루소주의적 제국이라고 주장했지만, 이후 우리는 세대간

6) Judith Butler, Ernesto Laclau, and Slavoj Žižek, *Contingency, Hegemony, Universality. Contemporary Dialogues on the Left* (London: Verso, 2000), p. 160: “It will be crucial to maintain a political culture of contestation on these and other parallel issues, such as the the legitimacy and legality of public zones of sexual exchange, intergenerational sex, adoption outside marriage, increased research and testing for AIDS and transgender politics.” 이 책은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주디스 버틀러, 에르네스토 라클라우, 슬라보예 지젝, 『우연성 헤게모니 보편성-좌파에 대한 현재적 대화들』, 박대진·박미선 옮김 (서울:도서출판 b, 2009).

7) Judith Butler,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Taylor & Francis e-Library, 2002), p. 123: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Foucault’s position in the first volume of *The History of Sexuality* and in his introduction to *Herculine Barbin* is already to be found as an unresolved tension within the *History of Sexuality* itself (he refers there to ‘bucolic’ and ‘innocent’ pleasures of intergenerational sexual exchange that exist prior to the imposition of various regulative strategies.”

8) T. Spargo, *Postmodern Encounters: Foucault and Queer Theory* (Icon Books, Cambridge, 2000), 8.

9) M. A. McLaren, *Feminism, Foucault, and Embodied Subjectiv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lbany, 2002), 144.

10) Catriona Ida Macelod/ Kevin Durrheim, “Foucauldian Feminism: the Implications of Governmentality,”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ur* 32(1), 2002 봄, 41-60.

11) Adam Soboczynski, “Achtundsechziger - Pädophiler Antifaschismus”, *Die Zeit*, 2013년 10월 10일 기사 (<https://www.zeit.de/2013/42/paedophiler-antifaschismus-kindessmissbrauch>).

성관계(소아성애) 속의 엄연한 권력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미셸 푸코에 대한 페미니즘적 해석에 대한 연구서에 포함된 “위험한 쾌락들: 푸코와 소아성애의 정치학”(Dangerous Pleasures: Foucault and the Politics of Pedophilia)이라는 논문은 푸코의 소아성애적 성정치를 잘 분석하고 있다.<sup>12)</sup>

## 2. 버틀러는 부모-자식간의 근친상간의 가능성을 변호한다.

### 2. 1. 버틀러는 근친상간 금기에 대한 푸코적 비판을 확장한다.

버틀러는 『젠더 트러블』 페이지 59-78까지 상세하게 근친상간 금기를 논한다. 여기서 버틀러는 사실상 근친상간 금기를 파계하고 해체하려고 한다. 버틀러는 “근친상간 금기에 대한 푸코적 비판을 확장”하려고 한다. 버틀러에 의하면 근친상간 금기는 근친상간적 성욕망을 금지하고 어떤 젠더화된 주체성들을 강제적 동일시 메커니즘을 통해서 구성하는 것이다. 버틀러는 이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금기적 법률의 “보편성 혹은 필요성을 보증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서 근친상간 금기를 사실상 해체하려고 한다.<sup>13)</sup> 버틀러는 근친상간 금기가 동성애 금기를 생산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에, 근친상간 금기를 해체하려고 한다. 버틀러는 근친상간 금기로 인해서 동성애는 억압된 채 머물기 위해서 생산되어야 하는 그런 욕망으로 출현한다고 분석한다.<sup>14)</sup> 버틀러는 근친상간 금기와 동성애 금기를 “억압적 명령”으로 파악해서 그 억압적 명령인 근친상간 금기를 해체하고자 한다.<sup>15)</sup> 근친상간 금기는 동성애 금기를 생산하는 기초와 근거이기에 동성애자 버틀러는 이를 해체하고자 한다. 버틀러에 의하면 근친상간 금기는 동성애 금기를 또한 내포한다. 버틀러는 소아성애자 게일 루빈을 인용하면서 근친상간 금기는 그 이전의 덜 표현된 동성애 금기를 전제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기에 이를 해체하고자 한다.<sup>16)</sup> 버틀러는 레비-스트로스 구조주의 인류학에서

---

12) Linda Martin Alcoff, “Dangerous Pleasures: Foucault and the Politics of Pedophilia,” in Susan Hekman (ed.), *Re-Reading the Canon: Feminist Interpretations of Michel Foucault* (University Park, PA: Penn State Press, 1996), pp. 99-136.

13) Judith Butler,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1990), p. 76: “If we extend the Foucaultian critique to the incest taboo, then it seems that the taboo and the original desire for mother/father can be historicized in ways...” ; ““The incest taboo is the juridical law that is said both to prohibit incestuous desires and to construct certain gendered subjectivities through the mechanism of compulsory identification. But what is to guarantee the universality or necessity of this law ?”.

14) Butler,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1990), p. 77: ““ If the incest taboo regulates the production of discrete gender identities, and if that production requires the prohibition and sanction of heterosexuality, then homosexuality emerges as a desire which must be produced in order to remain repressed.”

15) Butler,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1990), p. 65: “The taboo against incest and, implicitly, against homosexuality is a repressive injunction which presumes an original desire localized in the notion of ‘dispositions,’ which suffers a repression of an originally homosexual libidinal directionality.”

16) Butler,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1990), p. 73. “Hence, the incest taboo not only forbids sexual union between members of the same kinship line, but involves a taboo against homosexuality as well. Rubin writes: ‘the incest taboo presupposes a prior, less articulate taboo on

말하는 근친상간 금기의 “문화적 연속성”을 수용하기를 거부한다.<sup>17)</sup>

주디스 버틀러는 자신의 저서 『젠더 허물기』(Undoing Gender)에서 소아들에 대한 근친상간이 때로는 성폭력이 아닌 경우도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버틀러는 “부모-자식간의 근친상간을 부모에 의한 자식에 대한 일방적 침해라고만 반드시 볼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sup>18)</sup> 버틀러는 근친상간이 성폭력이 아닌 경우도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버틀러는 “필연적으로 트라우마틱하지 않은 형태의 근친상간이 아마도 존재하거나 아니면 근친상간은 그것이 생산하는 사회적 수치심에 대한 의식 때문에 그 트라우마틱한 성격을 지니게 된다”고 주장한다.<sup>19)</sup> 버틀러는 “그렇기에 근친상간 금지를 때로는 성폭력을 방지하는 것으로 때로는 성폭력을 발생시키는 바로 그 도구로 재고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20)</sup>

버틀러에 의하면 부모-자식간의 근친상간이 때로는 문제 없다. 버틀러의 이러한 부모-자식간의 근친상간이 때로는 성폭력이 아니며 트라우마로 남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며, 오히려 근친상간에 대한 사회적 수치심에 대한 의식 때문에 트라우마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소아성애 옹호자들의 오래되고 전형적 논증이다. 버틀러의 논리에 따르면 부모-자식간의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것이 해롭다. 2020년 급진생태학자 데릭 젠슨 교수(Derrick Jensen)는 퀴어 이론이 소아성애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비판하는 대표적 학자다. 젠슨 교수는 퀴어 이론의 대부 미셸 푸코와 퀴어 이론의 초석적 텍스트를 저술한 게일 루빈이 모두 소아성애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게일 루빈은 소아성애자로 커밍아웃했다. 젠슨 교수에 의하면 버틀러도 소아성애 지지자에 속한다.<sup>21)</sup> 버틀러와 같은 퀴어 이론가들이 소아성애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젠슨 교수의 입장은 2019년 10월 『Feminist Current』에 “이제 우리 모두가 빅 식스터(Big Sister)에 저항해야 할 시간이다”라는 제목으로 실렸다.<sup>22)</sup> 퀴어이론은 본질적으로 소아성애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퀴어 이론과 소아성애”의 깊은 관계를 분석한 논문도(The Trojan Unicorn: QT and Paedophilia) “현대 퀴어 이론의

---

homosexuality.”

17) Butler,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1990), p. 75.

18) Judith Butler, *Undoing Gender* (London: Routledge, 2004), p. 155: “It is not necessary to figure parent-child incest as a unilateral impingement on the child by the parent, since whatever impingement takes place will also be registered within the sphere of fantasy. In fact, to understand the violation that incest can be---and also to distinguish between those occasions of incest that are violation and those that are not---it is unnecessary to figure the body of the child exclusively as a surface imposed upon from the outside.”

19) Butler, *Undoing Gender* (London: Routledge, 2004), p. 157: “So I keep adding this qualification: ‘when incest is a violation,’ suggesting that I think that there may be occasions in which it is not. Why would I talk that way? Well, I do think that there are probably forms of incest that are not necessarily traumatic or which gain their traumatic character by virtue of the consciousness of social shame that they produce.”

20) Butler, *Undoing Gender* (London: Routledge, 2004), p. 160: “It might, then, be necessary to rethink the prohibition on incest as that which sometimes protects against a violation, and sometimes becomes the very instrument of a violation.”

21) <https://www.youtube.com/watch?v=Pro4W07ySII> ( LGBTQP: University professor exposes the concrete link between Queer Theory and pedophilia advocacy. Professor Derrick Jensen exposes the facts - no conjecture here - about how Queer Theory's founders (i.e. Foucault) and contemporaries (i.e. Judith Butler) are all advocates of pedophilia as just another sexual orientation).

22) DERRICK JENSEN, LIERRE KEITH, MAX WILBERT, “It’s time for us all to stand up against Big ‘Sister’, ” *Feminist Current*. 2019년 10월 5일 ( <https://www.feministcurrent.com/2019/10/05/its-time-for-us-all-to-stand-up-against-big-sister/> )

구루 주디스 버틀러가 근친상간을 변호했다”는 제목으로 버틀러의 소아성애와 근친상간 옹호를 비판했다. 이 논문은 수 많은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이 친족에 의한 아동 성폭력이라는 사실을 버틀러가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sup>23)</sup>

버틀러에 의하면, 동성애 금기는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뿐만 아니라 구조주의 인류학이 말한 근친상간 금기에 보이지 않게 전제되어 있다. 그녀에 의하면 근친상간의 금지는 동성애의 금지를 이미 전제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욕망의 이성애화(heterosexualization)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에 의하면, 근친상간 금기는 욕망을 이성애적인 것이라고만 본다. 그녀에 의하면 근친상간 금기는 이성애 결혼제도를 영속화시키는 장치다. 즉 레비-스트로스에 의하면 친족구조의 핵심은 근친상간 금기다. 버틀러는 레비-스트로스의 근친상간금지의 규칙이 보편규칙이 아니라 이성애 결혼제도를 영속화시키는 장치라고 보았다. 버틀러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인류학은 중요한 금기로 ‘근친상간 금기’를 들지만, 이 ‘근친상간 금기’라는 설명방식은 그 이전에 선행하는 ‘동성애 금기’를 은폐하면서 ‘이성애’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글로벌 성혁명’의 저자 독일 사회학자 가브리엘 쿠비도 버틀러가 근친상간 금기를 해체하려고 한다고 여러 강연에서 비판한 바 있다. 급진페미니즘 학자 케이트 밀레트(Kate Millett)도 “근친상간 금기를 가부장적 사유의 초석 중 하나”라고 보기에 해체하려고 한다.<sup>24)</sup>

## 2.2. ‘위대한 지성’ 버틀러의 ‘오이디푸스 왕’에 대한 성혁명적 오독

하지만 버틀러는 그리스 비극작품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에 대한 명백한 오독에 기초해서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인다. 버틀러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에 등장하는 어머니를 향한 아이의 근친상간 성욕망을 긍정하면서 소아성애를 지지한다. 국내 주류 그리스 고전학자들, 특히 전남대 최혜영 교수가 바르게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스 비극은 (성)혁명문학이 아니라, 카타르시스 생산을 위한 그리스 폴리스 호국문학이었다. 2021년 8월 tvN 스토리 ‘책 읽어주는 나의 서재’ 방송 ‘오이디푸스 왕’에 대한 강의에서 서울대학교 그리스 고전학자 김 헌 교수가 오이디푸스를 일종의 희생제물(희생염소, scapegoat)로 잘 분석하면서 설명했다. EBS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마인즈에 포함될 위대한 지성이라면 적어도 소포클레스 그리스 비극작품 ‘오이디푸스 왕’의 수수께끼는 디코딩할 수 있어야 한다. 주디스 버틀러는 독일 낭만주의의 산물인 프로이트 정신분석에서 발견되는 ‘오이디푸스’에 대한 인지불능을 기호학적-언어구조주의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프로이트 이후의 오이디푸스에 대한 각종 프로이트막시즘적, 포스트모던적, 성혁명적, 기호학적 그리고 언어구조주의적 사변과 거품은 이제 정리가 되어야 한다. 꿈, 무의식 그리고 비이성에 천착하고 집착한 독일 낭만주의의 산물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처럼 프로이트막시즘(Freudomarxismus) 담론의 산물인 버틀러의 젠더이론도 그리스 비극에 대한 명백한 오독에 기초한 사변이다. 버틀러의 소아성애와 근친상간 옹호의 이론적 근거로도 작용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근친상간과 부친살해는 르네 지라르가 프로이트를 비판하면서 잘 분석했듯이 욕받이인 오이디푸스에 대한 최악의 욕(마녀사냥)으로 읽어야지, 성혁명적으로 읽을 수 없다. 버틀러는

23) <https://uncommongroundmedia.com/the-trojan-unicorn-qt-and-paedophilia-part-iv-dr-em/>

24) <https://planetwaves.net/astrologynews/blasius.html>

오이디푸스와 안티고네를 동성애 금기, 근친상간 금기 그리고 소아성애 금기를 해체하고 파계하는 근거로 오독하고 있다. 하지만 오이디푸스와 안티고네는 카타르시스적 호국문학이자 정치문학인 그리스 비극작품으로 질서가 유지되고 갱신되는 그리스 폴리스의 비극적 '욕받이'들이다.<sup>25)</sup>

푸코의 『성의 역사』 1권의 서론에는 푸코가 이론적으로 소아성애의 비범죄화를 주장할 뿐 아니라, 나아가 버틀러처럼 근친상간 금기의 폐기도 주장하고 있다. 푸코와 버틀러 모두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초석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근친상간과 부친살해)를 제시한다. 소아 오이디푸스의 어머니를 향한 근친상간적 성욕망을 긍정함으로서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려고 한다. 하지만 르네 지라르가 프로이트를 잘 비판하듯이 오이디푸스의 근친상간과 부친살해는 억압된 성욕망의 상징이 아니라, 일종의 파르마코스인 오이디푸스의 '하마르티아'로 읽어야 한다. 근친상간과 부친살해는 사회주의 성혁명 운동에 등장하는 소아성애나 근친상간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최악의 욕이며 오이디푸스는 쉽게 말해 욕받이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프로이트막시즘(푸코와 버틀러) 모두 소포클레스의 그리스 비극작품 '오이디푸스 왕'에 대한 오독에 기초하기 있기에 이론적으로 학문성을 결여하고 있다.

### 2.3. 주디스 버틀러, 근친상간 그리고 아이의 사랑 ?

“주디스 버틀러, 근친상간 그리고 아이의 사랑에 대한 질문”이라는 2010년 논문은 버틀러의 소아성애와 근친상간 지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대표적 연구다.<sup>26)</sup> 이 논문의 요약문에는 “근친상간을 권력의 관점으로만 이해하는 주디스 허만(Judith Herman)과는 대조적으로, 주디스 버틀러는 근친상간 이해에 있어서 아이의 사랑(the child's love)의 중요성을 주장한다”고 소개되어 있다. 이 논문에 의하면 “버틀러는 (소아들의) 근친상간적 욕망들은 점차 발전해나가는 아이들의 섹슈얼리티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버틀러의 입장은 근친상간을 아이들의 신체에 대한 잔인한 외부침입으로 파악해서 근친상간을 아이들 자신의 성욕망과 그 어떤 관계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페미니즘적인 근친상간 이해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다.”<sup>27)</sup> 버틀러는 “부모-자식간의 근친상간”과 소아성애가 트라우마틱한 성폭력이 아닌 경우도 존재하며 오히려 근친상간 금기에 대한 사회적 수치심이 트라우마를 남긴다고 주장한다. 부모-자식간의 그리고 성인과 소아들 사이의 상호적이고 협의적인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은 트라우마를 남기는 아동 성폭

25) 르네 지라르 이론에 기초한 주디스 버틀러의 그리스 비극에 대한 오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비판은 다음의 필자의 책을 참고하라: 정일권, 『문화막시즘의 황혼. 21세기 유럽 사회민주주의 시대의 종언』 (서울: CLC, 2020).

26) JE Kilby, “Judith Butler, Incest, and the Question of the Child's Love,” *Feminist Theory* 11, no. 3 (December 2010), pp. 255-265.

27) “Bezogen auf diese Debatte ist Butlers Position eindeutig: Sie betont, dass inzestuöse Sehnsüchte Teil der sich entwickelnden kindlichen Sexualität sind und damit ist Butlers Denkweise durchweg gegenläufig zu jenem feministischen Verständnis von Inzest (etwa bei Hermans), das diesen als »brutale Fremdeinwirkung auf den kindlichen Körper« begreift: als ein Ereignis, das nicht im Geringsten etwas mit den eigenen sexuellen Bedürfnissen des Kindes zu tun hat.” (앞에서 소개한 논문 JE, Kilby, 'Judith Butler, incest, and the question of the child's love'의 독일어 번역본으로는 독일 '좌파 정치와 학문을 위한 좌파넷'(Linksnet. Für Linke Politik und Wissenschaft)에 실렸다: <https://www.linksnet.de/artikel/26240>)

력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하는 버틀리의 입장은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을 아동 성폭력으로 파악하는 입장과 확실하게 대조적이다. 이 논문도 요약문에서 트라우마 연구로 세계적인 학자 하버드대 주디스 허만(Judith Herman) 교수의 입장과 주디스 버틀리의 입장이 분명 대조적이라는 사실을 핵심적으로 소개한다. 주디스 허만 교수의 저서 "트라우마 -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원제 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 1997년)"(최현정 옮김. 열린책들, 2012)는 1997년 뉴욕타임스로부터 "프로이트 이후 출간된 가장 중요한 정신의학서 중 하나"라는 찬사를 받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권위서로 남게 되었다. 주디스 허만 교수는 아동 성폭력이 남긴 깊은 트라우마 연구의 권위자다.

아이의 사랑에 방점을 두면서 소아성애를 변호하는 버틀러와 마찬가지로 동성애적 소아성애자(남색자) 미셸 푸코도 1979년 강의에서 성인을 유혹하는 아이들의 성욕망을 주장함으로써 소아성애를 옹호했다. 1979년 미셸 푸코는 "반-소아성애 히스테리아"라는 방송과 글을 통해서 "소아매춘"에 대해서 말하면서 소아들은 성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주장하는 정신분석학자들과 정신의학자들의 입장을 오히려 공격하면서 "성인을 유혹하는 소아들의" 성욕망을 주장하고 있다. "아마 자신의 고유한 섹슈얼리티를 가진 아이가 성인을 욕망했고, 성관계를 동의했고, 심지어 (소아성애적 성관계)의 첫 걸음을 주도했다"고 푸코는 말한다.<sup>28)</sup> 아이의 주체적인 사랑과 성욕을 버틀러와 푸코 뿐 아니라, 독일 68 '소아성애적 안티파'와 녹색당도 강조하면서 소아성애 운동을 했다. 버틀러가 말하는 '아이의 사랑'은 독일 68 '소아성애적 안티파'의 주요 화두였다.

버틀러와 푸코처럼 아이들의 성욕을 강조하는 것은 소아성애 변호자들의 전형적 가해자전략이다. 독일 "교육자들의 교황" 혹은 "교육계의 교황" („Pädagogenpapstes")<sup>29)</sup>이자 독일 68 반권위주의적 "개혁교육의 교황" (der Papst der Reformpädagogik)<sup>30)</sup>으로 평가되는 하르트무트 폰 헨티히 (Hartmut von Hentig) 교수는 독일 전 대통령 리하르트 폰 바이처제커(Richard von Weizsäcker)와 깊은 관계를 가진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교육학자였는데, 그는 소아성애를 변호하면서 아이들이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해서 그 동안 받았던 많은 영예로운 상을 박탈당했다.<sup>31)</sup> 헨티히 교수는 독일 68 반권위주의적 진보교육의 메카이지만 이후 "소아성애자들의 천국"인 동시에 "아이들의 지옥"으로 변해버린 오덴발트 슐레(Odenwald Schule)의 교장인 게롤드 베커와 동성애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상습적인 소아성애자 게롤드 베커의 수 백명에 이르는 어린 학생들에 대한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소아성애적 아동 성폭력을 아이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성욕을 강조하는 버틀러와 유사한 논리로 변호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 오덴발트 슐레는 독일 68 진보교육의 성지로서 3M 높이의 거대한 남근상을 상징처럼 세워놓았다. 지금은 폐교가 된 이 국내

28) "Perhaps the child with his own sexuality desired the adult, perhaps consented, perhaps even initiated the first steps. We can admit that it was the child who seduced the man, but our psychological insight assures us that the seducing child will undoubtedly be damaged and traumatized by having had an affair with an adult." (Michel Foucault is Professor at the College de France. Translated by Daniel Moshenberg. Excerpted from "Dialogues," a French radio program produced by Roger Pillaudin and published by Recherches, April 1979. from SEMIOTEXT(E) SPECIAL, Intervention Series 2: Loving Children, p. 44ff.)

29) <https://taz.de/!5234732/>

30) <https://www.welt.de/debatte/kommentare/article216508994/Paedophilie-Zweierlei-Umgang-mit-Missbrauchs-Faellen.html>

31) <https://www.beltz.de/fileadmin/beltz/leseproben/978-3-7799-2929-1.pdf>

김누리 교수가 찬양하는 독일 68 진보교육, 개혁교육 그리고 교육혁명의 성지인 오덴발트 숲레에 서의 집단적 소아성애와 남색과 깊게 연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헤티히 교수는 버틀러와 유사한 논리를 가지고 아이들의 사랑과 성욕을 강조하면서 아이들이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해서 신랄한 비판을 받았다. 게롤드 베커와 함께 독일 68 교육혁명, 개혁교육 그리고 진보교육을 주도하면서 플라톤의 '향연'에 등장하는 소아성애/남색을 정당화하는 '교육학적 에로스' 개념을 도구로 헤티히 교수는 소아성애적/남색적 강간을 범한 게롤드 베커를 여전히 변호하고, 아이들이 먼저 유혹했다는 식으로 이 아동 성폭력을 미화하고 은폐해서 최근에는 독일 바이에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sup>32)</sup>

#### 2.4. “소아성애: 권력관계에 대한 부정”(독일 원조 여성학자 알리체 슈바르처)

아이의 사랑에 방점을 두면서 주체적, 상호적 그리고 협의적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을 변호하는 주디스 버틀러와 같은 입장을 가장 대표적으로 비판하는 학자는 시몬 드 보부아르와 장 폴 사르트르와 깊은 교분을 가진 독일 원조 페미니즘 학자 알리체 슈바르처(Alice Schwarzer)다. 2017년 주디스 버틀러와 알리체 슈바르처는 독일 언론을 통해서 날카로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sup>33)</sup> 버틀러의 젠더이론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비판하는 여성학자가 알리체 슈바르처다. 알리체 슈바르처는 양성평등에 대한 그의 기여가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그 공로로 독일 정부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았다. 그녀는 30여권의 저서를 집필한 페미니스트로서 독일을 대표하는 페미니스트라 할 수 있다. 그녀는 2011년 스위스 언론 NZZ(Neue Zürcher Zeitung)의 방송 인터뷰에서 여성 연구(페미니즘)를 대체하면서 여성연구로부터 젠더연구로 페러다임 전환한 버틀러식의 젠더 페미니즘(성인지 페미니즘)에 대해서 비판하는 대표적 지성이다. <sup>34)</sup> 슈바르처는 2010년 헤티히 교수가 소아성애적 혹은 남색적 강간을 범한 게롤드 베커를 변호하면서 그 아이들이 오히려 선생인 게롤드 베커를 성적으로 유혹했다고 주장한 것을 신랄하게 비판했다.<sup>35)</sup>

버틀러와 유사한 주장을 한 독일 교육계의 교황 헤티히 교수의 소아성애 미화발언과 옹호발언을 비판하면서 슈바르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에서 언급한 아동 성폭력의 트라우마 연구의 대가인 하버드 대학교수 주디스 허만의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추천했다. 허만 교수의 책은 『폭력의 흉터』라는 제목으로 독일어로 번역되었다. 아동 성폭력은 깊게 각인된 정서적 흉터와 상처를 남기며 그것은 쉽게 치유되기 힘들다. 주디스 버틀러의 소아성애와 근친상간 옹호 입장을 맞서서 우리는 아동 성폭력의 트라우마 연구의 대가인 주디스 허만의 연구를 재발견해야 한다.<sup>36)</sup> 주디스 허만 교수는 『아버지-딸 사이의 근친상간』이라는 책도 출간했다.<sup>37)</sup> 주체적, 상호적 그리고 협의적

32) <https://www.justiz.bayern.de/presse-und-medien/pressemitteilungen/archiv/2010/40.php>

33) [https://www.deutschlandfunkkultur.de/alice-schwarzer-contra-judith-butler-ueberfaelliger-streit.1013.de.html?dram:article\\_id=394048](https://www.deutschlandfunkkultur.de/alice-schwarzer-contra-judith-butler-ueberfaelliger-streit.1013.de.html?dram:article_id=394048)

34) Alice Schwarzer | Der Blick zurück (NZZ Standpunkte 2011).

35) <https://www.aliceschwarzer.de/artikel/aus-liebe-154351?fbclid=IwAR3dVMFOFDN1-YpqaQhooq7bx8BJL5Vd5XyChrjgBmMQacT0GUggqFRuU>  
<https://www.beltz.de/fileadmin/beltz/leseproben/978-3-7799-2929-1.pdf>

36) Judith Herman, *Die Narben der Gewalt- Traumatische Erfahrungen verstehen und überwinden* (Junfermann Verlag, 2003).

37) Judith LewisHerman/Lisa Hirschman, *Father-daughter inces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은 가능하며 트라우마를 남기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주디스 버틀러와는 달리 알리체 슈바르처는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을 아동 성폭력으로 파악하고 매우 깊게 이 문제를 비판해 왔다. 그녀는 독일 68 성혁명, 독일 녹색당, 사민당, 독일 68 반권위주의적-루소주의적 진보교육의 성지이자 메카인 오덴발트 Schule(Odenwald Schule), 헬무트 쾨틀러 교수, 헨티히 교수 등에서 발견되는 소아성애적이고 남성적인 아동 성폭력 문제를 선구자적으로 용감하게 독일 언론과 사회에서 공론화했다. 2010년 독일 진보교육의 성지인 오덴발트 Schule에서의 집단적 소아성애 사태 폭로 이후로 대세로 자리잡은 독일 68 소아성애 과거사 청산 운동의 선구자가 알리체 슈바르처다.

알리체 슈바르처는 일종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소아성애와 근친상간 지지입장은 성인과 소아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관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2010년 알리체 슈바르처는 "소아성애: 권력관계에 대한 부정"(Pädophilie: Zur Leugnung der Machtverhältnisse)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서 "문제의 핵심은 항상 성인과 소아들 사이의 권력관계에 대한 부정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녀는 권력관계는 부정되면서도 "성인과 소아들 사이의 외견상의 상호성과 동의가 암시되어졌다"고 바르게 분석했다.<sup>38)</sup> 1980년에 이미 알리체 슈바르처는 "소아성애를 해방시킨다?"(Emanzipiert Pädophilie?)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서 소아성애 운동가들이 근친상간 금지에 대한 법률도 폐지를 시도했다고 바르게 폭로했다.<sup>39)</sup> "매춘과 소아성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슈바르처는 "매춘과 소아성애 사이에는 유사점이 존재한다고 말해진다"고 분석하면서 "한때 스스로 진보적이라고 이해하는 시대정신은 소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소아들과의 섹스에 대한 권리를 변호했었다"고 비판한다. 슈바르처는 "그 때에는 성인과의 섹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소아들의 욕구들에 대해서 주장되어졌고, 소아들은 성인과의 섹스를 '자발적으로' 그리고 '동의적으로' 수행했다고 주장되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소아성애적 매춘의 문제와 함께 90% 정도의 창녀들이 아동 성폭력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sup>40)</sup> 슈바르처는 이렇게 동의하에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이라는 논리를 반박하면서 성인과 소아들 사이의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에는 비대칭적 "권력관계"에 분명히 존재한다고 바르게 지적했다. 버틀러는 '아이의 사랑'에 기초한 상호적, 주체적, 자발적 그리고 동의적 근친상간과 소아성애는 트라우마틱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성인과 소아들 사이의 엄연히 존재하는 권력관계, 의존관계 그리고 종속관계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주디스 버틀러의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에 대한 옹호적 입장은 68 성혁명과 소아성애 운동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논리, 곧 아이들의 성욕망에 기초한 동의하에 이루어진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이라는 논리와 유사한데, 바로 이러한 소아성애자

38) <https://www.emma.de/artikel/paedophilie-zur-leugnung-der-machtverhaeltnisse-265158>

39) <https://www.emma.de/artikel/sexueller-missbrauch-emanzipiert-paedophilie-265011>

40) <https://www.aliceschwarzer.de/artikel/prostitution-und-paedophilie-312893> : "Die Rede ist von der Parallele zwischen Pädophilie und Prostitution. Die Rede ist von dem, was für Feministinnen schon immer offensichtlich war. Einst plädierte der sich als fortschrittlich verstehende Zeitgeist für das Recht auf Sex mit Kindern - im Namen der Kinder. Es sei das Bedürfnis der Kinder, wurde behauptet, ihre Sexualität auch mit Erwachsenen auszuleben, sie täten das 'freiwillig' und 'einvernehmlich'."

들이나 소아성애 지지자들의 주장들은 성인과 소아들 사이에 존재하는 비대칭적 권력관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슈바르처는 지적한다. 슈바르처는 이렇게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을 아동 성폭력으로 파악한다.

## 2.5. 소아의 성욕: 독일 68 “소아성애적 안티파”의 화두

아이들의 섹슈얼리티와 소아들의 성욕망을 강조하는 버틀러의 논리는 독일 68 ‘소아성애적 안티파’의 소아성애 운동의 논리와 유사하다. 버틀러도 강조하는 아이의 사랑과 소아의 섹슈얼리티(Kindersexualität)는 독일 68 “소아성애적 안티파”와 녹색당의 소아성애 운동의 주요 화두였다. 버틀러와 독일 68 소아성애 운동은 모두 자발적, 주체적, 상호적 그리고 협의적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을 강조함으로 아동 성폭력과 아동 학대 문제를 “무해화”시키고 있다. 독일 68 학생운동과 독일 녹색당은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성인들과 소아들 사이의 소아성애를 파시즘격파를 위한 위대한 행위로 이해하고 찬양했다. 버틀러의 쿼어무정부주의도 독일 68 ‘소아성애적 안티파’와 맥을 같이 한다. 독일 저명한 주간지 ‘디 짜이트’(Die Zeit)는 2013년 10월 10일 “68 세대 - 소아성애적 반파시즘”(Achtundsechziger - Pädophiler Antifaschismus)라는 제목으로 68 학생운동 속의 소아성애 운동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좌파의 아동학대에 대한 무해화 방법을 알려고 하는 자는 당시의 파시즘 이론을 공부해야만 한다: 당시에 성해방이 나치 과거사청산으로 이해되어졌고 소아성애는 해방으로 이해되었다”라는 소제목 아래서 다음과 같이 이 기사는 분석한다: “성해방이 반파시즘적인 기획으로 간주되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위해 빌헬름 라이히에 근거했고 자유로운 사랑으로 나치시대 뿐 아니라 전후 시대의 왜곡된 의식을 물리치고자 했다. 지배없고 - 그리고 이상적인 방식으로는 소가족(Kleinfamilie)으로부터 벗어난 사랑놀이(Liebesspiel)는 바로 다가오는 사회주의적 행복을 미리 발산하라고 여겼졌다.” “총동역압과 파시즘적인 이데올로기 사이에 존재한다는 여겨지는 연관성은 성인들과 어린 아이들간의 동의하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접촉들이 허용될 때 비로소 제거될 수 있다.” 당시 68 운동권들은 소아성애가 “어린 아이의 인성발달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들”을 가져온다고까지 주장했다. 68 학생운동 1년 이후에 작성된 “수업교재”(Kursbuch)는 “아이들과의 성적인 행위들을 칭송했다”. 68 학생운동의 소아성애 행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최근에는 독일 녹색당의 소아성애 연루 문제가 공론화되었고, 독일 녹색당 뿐 아니라, 독일의 “좌파와 좌파자유주의 배경의 소아성애”(Pädophilie im linken und linksliberalen Milieu)에 대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독일 68 학생운동, 녹색당, 좌파 그리고 좌파자유주의 진영에서 “성해방은 신하근성에 맞서는 적극적인 저항으로 파악되었다.” “‘해방된’ 성은 어린아이들과 성인들 사이의 어떠한 권력관계도 생각할 수 없는 죄 없는 순수함의 루소주의적인 제국(rousseauistisches Reich der Unschuld)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다.”<sup>41)</sup>

미셸 푸코와 독일 68 ‘소아성애적 안티파’ 모두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소아성애는 소아들과 성인들 사이의 어떠한 권력관계도 생각할 수 없는 죄 없는 순수함의 루소적인 제국이라고 이해하고

41) Adam Soboczynski, “Achtundsechziger - Pädophiler Antifaschismus”, Die Zeit, 2013년 10월 10일 기사 (<https://www.zeit.de/2013/42/paedophiler-antifaschismus-kindesmmissbrauch>).

찬양했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버틀러는 푸코의 이러한 관점을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 원조 여성학자 알리체 슈바르처의 용감한 반론처럼 소아들과 성인들 사이에는 비대칭적 권력관계가 엄연히 존재한다. 버틀러, 푸코, 독일 68 그리고 과거 녹색당은 모두 소아성애와 근친상간 속의 아동 성폭력 문제를 무해화하기 위해서 소아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성욕망을 강조하고 또한 엄연히 존재하는 성인-소아 사이의 권력관계에 대해서 부정하고 침묵한다. 동성애적 소아성애자 푸코와 소아성애 변호자 버틀러 등은 비대칭적인 권력관계의 상위에 존재하는 성인 보다는 종속되어 있는 아이들의 소아성애적이고 근친상간적인 성욕망과 아이들에 의한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주도과 유혹에 더 방점을 두어서 성인들에 의한 아동 성폭력 문제를 무해화하고 회피하려고 한다. 푸코와 같은 많은 동성애적 소아성애자들(남색자들)은 소아들도 성적인 존재로서 성욕망과 오르가즘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가스라이팅하고 그루밍해서 자신의 소아성애 파트너로 만든다.

독일 68 '소아성애적 안티파'의 대표적인 지식인은 독일 "성교육의 교황"이자 독일 성인지 성교육의 아버지인 헬무트 켄틀러(Helmut Kentler) 교수인데, 그는 최근 고아들을 대상으로 소아성애가 아동 교육에 좋다고 주장하면서 소아성에 실험을 해서 독일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동성애자인 켄틀러 교수도 버틀러와 유사하게 아이들도 성적인 존재이기에 오르가즘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 소아성애를 변호했다. 2020년 7월 30일 독일 공영 라디오방송 도이치란트퐁크(Deutschlandfunk)는 "독일 개신교회와 헬무트 켄틀러, 성해방으로부터 성폭력으로"라는 제목으로 독일 개신교와 개신교협의회(EKD)에서 깊게 활동했던 헬무트 켄틀러 교수와 독일 개신교와의 연관성을 비판적으로 조명했다. 켄틀러 교수는 "독일 개신교 모임들에 초대되어서" "아이들도 성적인 존재(sexuelle Wesen)라고 주장했다. 사회주의 성혁명 운동의 창시자 빌헬름 라이히 이후 조기성애화/조기성교육 전략을 주장하는 프로이트마시스트들은 언제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적인 존재(sexuelle Wesen)로 태어나며 소아들도 성적인 존재라는 논리 그리고 소아들도 오르가즘 쾌락을 느낄 권리가 있다는 논리로 소아성애를 정당화하고 정상화하고자 했다. "켄틀러 교수는 60년대 말부터 고아가 된 13세부터 15세 젊은 소년들을 베를린시의 그와 친분이 있는 남색자들(Päderasten)의 보호 아래에 있도록 넘겨주는 소위 실험을 했다." "2008년에 작고한 헬무트 켄틀러 교수는 사실상 성폭력(sexualisierter Gewalt)의 한 형태인 이 '실험들'에 대한 그 자신의 긍정적인 평가를 결코 수정하지 않았다"고 정치학자 테레사 네트비히(Teresa Nentwig) 박사는 이 독일 언론을 통해서 주장했다. 그리고 네트비히 박사는 "실제로는 이 소아성애 실험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나는 이 실험의 두 희생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희생자로 묘사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지저분한 것이었다(dreckig).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당시에 가해진 성적인 학대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독일 라디오 방송은 또한 "켄틀러 교수의 남색자들(Päderasten)과의 이러한 처벌가능한 작업에 대한 첫 암시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어느 정도 알려졌다. 하지만 2008년 켄틀러 교수의 죽음 이후에도 무엇보다도 독일 개신교 청소년 사역원(Evangelische Zentrum für Jugendarbeit)은 켄틀러 교수의 업적을 높게 평가했다"고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또한 이 독일 언론을 통해서 독일 개신교협의회(EKD)의 성폭력 예방 위원회의 대변인이자 독일 함부르크 주교인 키르스텐 페어스(Kirsten Fehrs)는 "나는 이러한 개혁교육적인 주장들을 높게 평가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일종의 한계무시의 문화(Kultur der Grenzverachtung)가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당시에는 자유가 한계없음

(Grenzenlosigkeit)과 동일시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맹점(blinde Fleck)을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 독일 언론은 켄틀러 교수의 소아성애 실험과 관련된 “독일 개신교 안에서의 조사필요성”을 주장한다. 또한 켄틀러 교수의 소아성애 실험에는 소아들과 성인 소아성애자들 사이에는 “권력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우베 질러트(Uwe Sielert) 교수의 입장도 이 언론은 소개했다.<sup>42)</sup>

2021년에는 독일 “성교육의 교황”인 헬무트 켄틀러(Helmut Kentler) 교수의 소아성애 실험을 고발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한 연구서가 출간되었다.<sup>43)</sup> 김누리 교수는 독일 68 성교육을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으로 주장하면서 국내 교육계에서 많이 강의했는데, 독일 최초로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독일 68 성교육을 정치교육으로 파악하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헬무트 켄틀러 교수였다. 동성애자 켄틀러 교수는 집 없는 아이들을 15년 동안이나 소아성애자들에게 넘겨 주어서 일종의 ‘다양한 가족’(퀴어 가족)을 구성하게 했는데, 그 아이들은 소아성애자들 혹은 남색자들의 성노예처럼 수 십년간 외부와 차단된 채 살았고, 오펜발트 술레의 경우처럼 어린 시절의 성적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서 자살한 경우도 발생했다고 한다. 독일 성인지 성교육의 아버지인 헬무트 켄틀러 교수의 소아성애 실험 속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력 사태로 인해서 2021년 독일 전역에 걸친 소아성애자 네트워크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 3. 아동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거세지는 68 소아성애 운동 과거사 청산

#### 3. 1. ‘동의’ ? : 68 소아성애 운동 과거사 청산이 새로운 대세다.

푸코와 마찬가지로 버틀러도 아이의 사랑, 소아들의 성욕 그리고 성인-소아 사이의 상호적이고 협의적 사랑을 강조하지만, 이러한 ‘동의’를 강조했던 프랑스와 독일 68 소아성애 운동의 부끄러운 과거사 청산이 최근에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2021년 2월 프랑스 문단 미투 운동의 신호탄이 된 바네사 스프링고라의 책 『동의(Le Consentement)』가 국내에 번역되어 출판되었다.<sup>44)</sup> 이 책은 출간 즉시 프랑스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로 출간 3개월만에 18만 부가 판매되었고 전 세계 20개국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침묵할 수밖에 없는 여자아이들만을 성적 대상으로 하면서 그 침묵이 동의라고 공격적으로 정당화한 문인 가브리엘 마츠네프”의 소아성애를 그녀는 폭로한다. 스프링고라는 약 30년 전 13세 때 처음 만났던 유명 작가와의 성착취 관계를 폭로하는 이 소설로서 수상쩍은 성윤리에도 불구하고 2013년 에세이 부문 르노도상을 수상하는 등 여전히 문단 내에서 강고한 위치에 있던 가브리엘 마츠네프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고발한다. 이 책은 2020년 엘르 여성 독자 대상을 수상했다. 이 책은 가스라이팅이 필연적인 청소년 성착취 사건에서 가해자가 무기로 삼고 사법부가 기계적으로 수용하는 ‘동의’라는 이 위험한 개념을 신중하게

42) Michael Hollenbach, “Die Evangelische Kirche und Helmut Kentler. Von sexueller Befreiung zu sexuellem Missbrauch.” Deutschlandfunk 2020년 7월 30일 기사.

[https://www.deutschlandfunk.de/die-evangelische-kirche-und-helmut-kentler-von-sexueller.886.de.html?dram:article\\_id=481491](https://www.deutschlandfunk.de/die-evangelische-kirche-und-helmut-kentler-von-sexueller.886.de.html?dram:article_id=481491)

43) Teresa Nentwig, Im Fahrwasser der Emanzipation? Die Wege und Irrwege des Helmut Kentler (Göttingen: Vandenhoeck&Ruprecht, 2021)

44) 바네사 스프링고라, 『동의』, 역사 정혜용 (서울: 은행나무, 2021).

고려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2017년 독일 교육학 학회(Die Deutsche Gesellschaft für Erziehungswissenschaft)는 "교육학적 상황 속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맥락 속에서 본 교육학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공식입장문을 통해서 2010년 독일 68 진보교육의 성지인 오덴발트 술레에서 발생한 집단적이고 구조적인 소아성애/남색 아동 성폭력 그리고 이 곳과 관련된 독일 "교육계의 교황"이자 독일 전 대통령과 "마피아처럼" 깊은 관계를 가진 하르트무트 폰 헨티피 교수의 소아성애/남색 사태 연루 그리고 또한 독일 68 '성교육의 교황'인 헬무트 켄틀러 교수의 소아성애 실험 게이트 등을 비판적으로 성찰한 바 있다.<sup>45)</sup> 이처럼 현 정부가 교육개혁의 모델로 많이 생각하는 독일 진보교육계도 2010년 이후부터 독일 68 성교육의 소아성애적 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깊게 반성하고 있다. 독일 교육계의 소아성애 운동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서는 스위스 쥐리히 대학의 위르겐 옐커스(Jürgen Oelkers) 교육학 교수가 대표적 연구가다.<sup>46)</sup>

### 3. 2. 소아성애적 성교육에 대한 독일 학부모단체의 저항운동

독일 키펜호이어 출판사(Der Verlag Kiepenheuer & Witsch)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미셀 푸코에 대한 출간을 2021년 프랑스 해외석학 기 소르망 교수에 의해서 폭로된 푸코의 소아성애 범죄로 인해서 연기하게 되었다고 2021년 4월 23일 독일 유력 신문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네짜이퉁(FAZ)이 보도했다. 푸코의 튀니지에서 소아성애 범죄 폭로로 인해서 "죽음의 계곡에서의 철학자 푸코의 마약일탈에 대한 명랑한 책을 출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출판사가 판단하게 되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sup>47)</sup> "아동보호를 소아성애자들과 가까운 성교육자들에게 정말로 맡기겠습니까?"라는 제목으로 독일 저명 언론 '벨트'(Welt)지는 2021년 6월 9일 독일 로마 가톨릭 아동학대방지에 관한 공식 입장문에 대한 학부모협회의 비판을 언론보도했다. 독일 로마 가톨릭 교회는 최근 아동학대방지에 대한 공식 입장문(ein Papier zur Prävention von Kindesmissbrauch)을 출간했는데, 학부모협회(Der Elternverein NRW)는 이 공식 입장문에는 소아성애자 미셀 푸코와 소아성애적 성교육학자 우베 질러트(Uwe Sielert) 교수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질러트(Uwe Sielert)교수는 독일 성인지 성교육의 아버지이자 최근 소아성애 실험이 폭로된 헬무트 켄틀러 교수의 제자이자 동료로서 68 '소아성애적 안티파'의 정신을 대변하는 성교육 학자다. 이 로마 가톨릭 공식문서는 미셀 푸코의 소아성애 범죄가 폭로되기 전부터

45) Erziehungswissenschaft. Heft 54, Jg. 28/2017. Zur Rolle der Erziehungswissenschaft im Rahmen der Debatte um sexuelle Gewalt in pädagogischen Kontexten Erziehungswissenschaft. Mit Beiträgen von Andresen, Baader, Brachmann, Demant, Elezovic, Huber, Kappeler u.a. Mitteilungen der Deutschen Gesellschaft für Erziehungswissenschaft DGfE (Verlag Barbara Budrich, 2017).

46) Jürgen Oelkers, *Eros und Herrschaft. Die dunklen Seiten der Reformpädagogik*(Basel: Beltz, Weinheim, 2011); Jürgen Oelkers, *Pädagogik, Elite, Missbrauch. Die „Karriere“ des Gerold Becker* (Weinheim, Beltz Juventa, 2016); Jürgen Oelkers, *Ist Dummheit lernbar? Re-Lektüren eines pädagogischen Bestsellers.*(Hrsg., mit Damian Miller.) (Basel, Zytglogge, 2018).

47)

<https://www.faz.net/aktuell/feuilleton/debatten/kiepenheuer-witsch-verschiebt-veroeffentlichung-von-foucault-buch-17352205.html?fbclid=IwAR2rfrkr7VdX7bQm4NqCIHtjBzywjM46T4lrPYW8See9vuQQLrqlHUUOmUeE>

준비되어 왔지만, 이 폭로가 이루어진 시점 즈음에 출간되어서 독일 가톨릭 교회도 좀 더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학부모들이 먼저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sup>48)</sup>

2021년 5월에는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학부모협의회가 미셸 푸코의 소아성애와 독일 68 성교육의 아버지 헬무트 켄틀러의 소아성애적-조기성애화적 성교육을 비판했다. 이 학부모협의회는 "독일 주교협의회에 보내는 공식 서한"을 통해서 "당신들은 아동보호와 성학대 방지를 정말로 소아성애자들과 가까운 성교육자들에게 맡길려고 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동성애적 소아성애자(남색자)인 미셸 푸코의 성담론과 또한 독일 68 '소아성애적 안티파'의 아이콘과 같은 헬무트 켄틀러 교수의 소아성애적 성교육이 강하게 반영된 독일 로마 가톨릭 성교육 교제에 대해서 비판했다. 이 공식서한에는 최근 폭로된 미셸 푸코의 튀니지에서의 소아성애적 매춘과 강간에 대한 비판이 있고, 또한 독일 성교육을 대표하는 헬무트 켄틀러 교수의 소아성애적 성교육에 대한 비판이 등장한다. 2021년 최근 독일어권 여러 곳에서 특히 학부모 단체들로부터 그 동안 지배적 성담론과 성교육으로 정착된 소아성애자 미셸 푸코와 소아성애 그룹들과 깊은 관계를 가져온 독일 헬무트 켄틀러 교수의 영향에 대한 저항운동이 거세지고 있다.<sup>49)</sup> 독일 저명 언론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네짜이퉁(FAZ)은 "켄틀러 실험: 교육으로서의 성학대"(DAS „KENTLER-EXPERIMENT“: Missbrauch als Erziehung)라는 제목으로 켄틀러 교수의 소아성애 실험이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sup>50)</sup>

버틀러, 푸코 그리고 독일 68 '소아성애적 안티파'의 성혁명적 성담론과 성교육은 독일 학부모단체 뿐 아니라, 영국 대학가에서도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2021년 5월 3일 영국 런던 킹스칼리지(King's College London)에서 발행하는 『킹스 비즈니스 리뷰』(King's Business Review)에는 "푸코의 소아성애 비난과 영문학부 강의계획서(English Syllabus) 재평가하기"라는 제목으로 미셸 푸코의 소아성애 범죄 폭로와 주디스 버틀러의 근친상간 금기 폐지주장 등으로 인해서 푸코와 버틀러가 대학 강의 계획서(syllabus)가 포함될 때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조명했다. "대학들은 이들 이론가들(푸코와 버틀러)가 소아성애를 지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책임·연루 등에 대한 부인(disclaimer)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진실에 대한 계획적인 모호하게 만들기와 이들 학자들을 존경할만한 학자들로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푸코와 버틀러는 우리가 흠모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고 이 기사는 주장한다. 이 기사에서는 또한 푸코가 그의 두 동시대인들과 진행한 라디오 방송은 푸코가 그 동안 동의적인 소아성애를 주장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 "동의하는 나이 자체를 아예 폐기해서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포함한 약탈적 소아성애를 비범죄화하기 위한 푸코의 열정"을 잘 보여주었다

48)

[https://www.welt.de/politik/deutschland/plus231687111/Kirche-Kinderschutz-paedophilienahen-Sexualpaedagogen-anvertrauen.html?fbclid=IwAR0NQVf1Zx9L5F\\_Vs7i2ChCL9hfD9RBtKzjmJR0HaSMgcoNHF40Qa\\_tLMo](https://www.welt.de/politik/deutschland/plus231687111/Kirche-Kinderschutz-paedophilienahen-Sexualpaedagogen-anvertrauen.html?fbclid=IwAR0NQVf1Zx9L5F_Vs7i2ChCL9hfD9RBtKzjmJR0HaSMgcoNHF40Qa_tLMo)

49)

[http://www.elternverein-nrw.de/wp-content/uploads/2021/05/PM\\_Elternverein-NRW\\_Offener-Brief-an-die-Bischofskonferenz\\_15.05.2021.pdf?fbclid=IwAR1rKP8XbFGMVsp3D2NOaniVpjLQubKreyvfd4IBT3gcuTgc\\_ZWtGccuomM](http://www.elternverein-nrw.de/wp-content/uploads/2021/05/PM_Elternverein-NRW_Offener-Brief-an-die-Bischofskonferenz_15.05.2021.pdf?fbclid=IwAR1rKP8XbFGMVsp3D2NOaniVpjLQubKreyvfd4IBT3gcuTgc_ZWtGccuomM)

50)

<https://www.faz.net/aktuell/feuilleton/debatten/der-kentler-fall-kindesmissbrauch-in-staatlicher-verantwortung-16817974.html>

고 적고 있다. 푸코와 버틀러 등의 소아성애와 근친상간 지지 등의 문제를 상세하게 비판한 엠 박사(Dr. Em)의 글 “트로이 유니콘: 퀴어 이론과 소아성애, 1부” (The Trojan Unicorn: Queer Theory and Paedophilia, Part 1)에는 “성폭력과 아동학대(child abuse)가 푸코에게 있어서는 ‘극도로 진부한 것이었다’(extremely banal)고 분석되고 있다. 푸코는 돈을 주는 것을 성행위 이후에 그 아이의 동의를 구입하는 것으로 제시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건의 실체를 변경시켜버렸다”고 주장되어졌는데, 이 내용이 이 『킹스 비즈니스 리뷰』(King’s Business Review)에 소개되었다. 이 글은 버틀러의 젠더이론이 푸코적인 이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이후 버틀러를 비판한다. “게다가 버틀러는 근친상간을 반대하는 입법을 함으로 인해서 국가는 이성애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퀴어 이론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근친상간을 변호한다. 2004년에 출간된 『젠더허물기』(Undoing Gender)에서 그녀는 “반드시 트라우마적이지 않은 근친상간 형태들이 아마도 존재하거나 혹은 (근친상간)의 트라우마적인 성격은 그것이 생산하는 사회적 수치심에 대한 의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다”<sup>51)</sup>고 주장한다고 이 글은 비판한다. 즉 버틀러는 “아동학대가 그 희생자들에게 가해진 심리학적 피해 때문에 트라우마틱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대한 공적인 항의와 혐오가 문제이다”고 “훈계”하는 것이다. “이제 드러난 것은 미셸 푸코와 주디스 버틀러는 대학의 영문학부에 의해서 최고의 문학비평가, 자유사상가 그리고 퀴어 이론의 창시자들로 존경을 받지만, 실제로는 “상당하게 사악한 견해들”(considerably sinister views)을 견지하고 있다. “만약 도덕적 가치라는 모양이라도 교수들에 의해서 견지되어야 한다면, 이러한 사실들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이 글은 주장한다. 미셸 푸코의 소아성애와 주디스 버틀러의 근친상간과 같은 “이러한 무시무시하고 약탈적인 개념들이 만약 그 이론가들의 세계관의 주요한 부분이고 그들의 문학적 작업들의 모든 측면들에 영향을 준다면 반드시 대학 강의 토론시간에서 회피되어져서는 안된다”고 이 기사는 바르게 주장한다.<sup>52)</sup>

### 3. 3. 뇌과학적으로 폐기된 ‘젠더의 종말’과 주디스 버틀러의 황혼

주디스 버틀러는 2020년 4월 “누가 젠더를 두려워하는가 ?” (Who is Afraid of Gender?) 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서 『젠더 트러블』의 저자로서 남녀의 생물학적 성차이를 교란시키고 해체시키는 트러블메이커로 그 동안 활동한 자신이 젠더이론에 대한 강력한 글로벌 저항운동에 직면했다고 소개한다. EBS 4강 방송 ‘논쟁의 중심’에서도 버틀러는 프랑스 마크롱 정부, 동부유럽, 남미에서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 반-젠더이데올로기 운동에 대해서 소개했다. 그녀는 2020년과 2021년 EBS 방송을 통해서 21세기 글로벌 반-젠더이데올로기(anti gender ideology movement)가 프랑스, 독일, 스위스, 헝가리 등 유럽 전역과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전역 등에서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프랑스 뿐 아니라, 독일에서도 국가페미니즘(Staatsfeminismus)

51) Judith Butler, *Undoing Gender* (London: Routledge, 2004), 157.

52) Samanta Gladklauskaite, “Allegations of Foucault’s Paedophilia and Re-evaluating the English Syllabus”, 2021년 5월 3일 King’s Business Review 기사.

[https://kingsbusinessreview.co.uk/\\_trashed-2?fbclid=IwAR3JtW12H0kyZGQGDHsNdvEs6kh-SszdhEhTR8lc1zCgS3bBb9Xx0TXzPc](https://kingsbusinessreview.co.uk/_trashed-2?fbclid=IwAR3JtW12H0kyZGQGDHsNdvEs6kh-SszdhEhTR8lc1zCgS3bBb9Xx0TXzPc)

형식으로 탐다운 방식으로(사회주의적 방식으로) 강제되는 젠더교육과 젠더연구가 "자주 전체주의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다고 주디스 버틀러는 불평한다. 주디스 버틀러는 21세기 유럽 전역에 걸쳐서 젠더교육에 대한 반대하는 운동이 커져서 점차 젠더교육이 폐지되고 있다고 2020년과 2021년 EBS 방송에서도 증언한다. 2013년 이후로 프랑스에서도 젠더교육 폐지 운동이 거세지고, 최근 헝가리에서도 젠더교육이 폐지되었고 젠더연구 중심지로 유명했던 중부유럽대학(Central European University)이 이 강력한 젠더 이데올로기 비판운동과 저항운동에 직면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디스 버틀러는 말한다.

1990년대 주디스 버틀러의 퀴어이론과 젠더연구 등을 가장 선구자적으로 독일 대학에 정착시켰던 독일 함부르크 대학 페미니즘 교수였던 마리안네 피퍼(Marianne Pieper)는 2018년 "퀴어 연구는 어디로 가는가? 퀴어 이론과 실천의 현상학과 미래에 대하여"(quo vadis queer studies? - Zur Situation und Zukunft queerer Theorie und Praxis)라는 강의에서 최근의 독일 대학에서의 퀴어 연구와 젠더 연구의 "극복"과 폐지 등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가르쳤던 독일 함부르크대학에서의 젠더 연구 분야도 최근 폐지되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독일 대학에서 젠더라는 이름을 단 학문분야가 우후죽순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최근 점차 폐지되고 있다고 인정한다. 그녀는 자신이 가르쳤던 독일 함부르크대학에서의 젠더 연구 분야도 최근 폐지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퀴어 연구와 젠더페미니즘 분야를 폐지하는데 독일 중도우파 정당인 기독교 민주연합(CDU) 정치인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 여교수는 소개한다. 그리고 피퍼 교수는 "뇌과학적으로 이미 반박되고 폐기된 존 머니(John Money)의 젠더개념"을 급진페미니즘 학자들이 수용해서 젠더 연구 분야를 만들었다고 비판적으로 분석한다.<sup>53)</sup>

2020년 성뇌과학(sexual neuroscience)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성연구가 드보라 소(Debra W. Soh)는 『젠더의 종말: 우리 사회의 성과 정체성에 대한 신화들을 폭로하기』라는 책을 통해서 젠더개념의 종말을 뇌과학적으로 주장했다.<sup>54)</sup> 미국 여성 신경정신병 학자의 2006년 출간된 "여성의 뇌"(The Female Brain)는 성인지 교육이 주장하는 유니섹스(Unisex)의 오류를 지적하고, 남성의 두뇌와 여성의 두뇌가 뇌과학적으로 얼마나 다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sup>55)</sup>

## 나오는 말

주디스 버틀러는 아이들의 성정체성 흔들기와 허물기를 기획하는 자녀교육의 '트러블 메이커'이기에 EBS의 '위대한 수업'은 사실 자녀교육에 대해서는 '위험한 수업'이었다. 대한민국 교육방송 EBS가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을 지지하는 주디스 버틀러에 대한 방송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은 결코 교육방송 EBS가 대중화시킬 수 있는 보편적 교육가치가 아니다. 버틀러가 계승하고 있는 68 '소아성애적 안티파' 성혁명 사상의 최대 피해자들이자 사회적

53) Prof. Dr. Marianne Pieper: quo vadis queer studies? - Zur Situation und Zukunft queerer Theorie und Praxis [https://www.freie-radios.net/101400?fbclid=IwAR0iNCrzo7KuDZ2IG0P4FGQkZJ9\\_9SwabS60yW7r4ByK-EGlaOd140G4GQU](https://www.freie-radios.net/101400?fbclid=IwAR0iNCrzo7KuDZ2IG0P4FGQkZJ9_9SwabS60yW7r4ByK-EGlaOd140G4GQU)

54) Debra W. Soh, *The End of Gender: Debunking the Myths about Sex and Identity in Our Society* (New York : Threshold Editions, 2020).

55) Louann Brizendine, *The Female Brain* (Morgan Road Books, New York, 2006).

약자인 아동들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감수성 있게 EBS 교육방송을 비롯한 한국 교육계가 독일 교육계처럼 응답하기를 기대한다. 프랑스와 독일의 68 '소아성애적 안티파'의 부끄러운 소아성애 과거사 청산이 새로운 대세이며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다.

논 찬 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주디스 버틀러의 소아성애와 근친상간 옹호를 비판한다 - EBS자녀교육의 '트러블 메이커' 주디스 버틀러의 위험한 수업 비판 -	발표자	정일권
		논찬자 (소속)	김기호 (한동대 교수)

EBS 교육방송이 방영한 강연에 대해 시의적절한 주제로 버틀러의 위험한 사상과 공영방송의 적절한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한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따라서 논문에 대한 논찬이라기 보다는 몇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고자 한다.

기존의 여권신장운동은 오랜 가부장적 문화에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처지에 있었던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들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교육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점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주디스 버틀러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적 구분 자체를 반드시 타파되어야 할 권력체계의 대표적인 부정적인 예로 보고, 자연질서를 완전히 부정하는 가치의 무정부 상태를 만든다는 점에서 그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만, 동성애를 지지하고 근친상간과 소아성애를 정당화하고자 했다는 것을 비판하면서 주디스 버틀러의 모든 학문적 성과가 부정되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다. 우선, 버틀러는 출산, 결혼, 노화, 죽음으로 구성되는 좁은 형태의 전통적인 가족개념보다는 확장된 친척공동체와 공동체 네트워크가 다음 세대에 더 나은 세계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그녀의 확장된 가족관에 대한 타당성 검토과정을 거친 후에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친(부정적인 방향으로) 동성애지지, 근친상간과 소아성애를 비범죄화하는 행위가 그녀의 이론체계안에서 어떤 모순을 가지는지를 살펴보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둘째로, 그녀가 규정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국가의 역할 안에서 그녀의 과격하고 급진적인 주장이 어떤 모순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도 있다. 버틀러는 종교나 문화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권력관계로 형성된 성의 구분 자체를 없애고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다양성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보수적 기독교 가치의 다양성은 왜 존중될수 없는 것일까?

존 롤스(John Rawls)의 원초적 입장, 정의의 두 원칙, 질서정연한 사회, 교육의 목적에 대한 정치철학적 장치들을 적용해본다면, 버틀러의 주장이야 말로 다양성을 보호하지 못하고, 성소수자들을 위한 사회를 만드는 획일성을 주장하는 셈이 되고 말 것이다.

발표자가 언급한 것처럼, 유럽사회의 여러 학부모 단체들이 근친상간과 소아성애를 정당화하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활동에 제동을 건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입시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나라의 학부모 단체들에겐 이런 활동을 소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실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아성애를 비범죄화하는 푸코와 버틀러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앞으로 건전한 여권신장운동의 방향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특별히 기독교적 관점에서 여권을 보호할 수 있는 건설적이며 바람직한 방향 제시가 있었으면 한다. 좋은 글을 읽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로 논찬을 마치고자 한다.